

대만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어휘 지식과 듣기 이해의 상관관계 연구

유 철 우 (서울대학교)
(dudu405@snu.ac.kr)



국문요약

본 연구는 대만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어휘 지식과 듣기 이해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서 듣기 교육의 방향과 어휘 지도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 그리고 듣기 이해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를 작성하여, 대만 K 대학교 2학년 초급 한국어 학습자 69명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그 결과,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이 각각 학습자의 듣기 이해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휘 지식(양적 어휘 지식, 질적 어휘 지식 포함)이 듣기 이해의 약 62%를 설명할 수 있었다.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이 모두 대만 한국어 학습자들의 듣기 이해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어 듣기 교육 시 학습자의 어휘 지식을 더욱 넓히고, 또한 어휘 지식을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한국어 교육, 양적 어휘 지식, 질적 어휘 지식, 듣기 이해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대만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어휘 지식과 듣기 이해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서 듣기 교육의 방향과 어휘 지도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휘 지식은 자연스러운 모국어 습득에서부터 원활한 외국어 학습까지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건이다(Read 2000, 122 ; Nation 2001, 김창구 외 역 2018, 41; Qian 2002, 514). 또한 어휘 지식은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조현용 2000, 6). Wilkins (1972, 111)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문법 지식이 없어도 최소한의 의미 전달이 가능하지만, 어휘 지식이 없으면 의미가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휘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어휘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두고 그동안 읽기 과정에서 어휘 지식의 역할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어휘 지식과 듣기 이해 간의 관계를 직접 다루는 연구는 다른 연구 내용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Lars 2009, 578 ; 박기표 2008, 211). 그러나 듣기 이해는 역시 어휘 지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언어 기능 중 하나이며(Goh 1998, 23; 김영은 2008, 144)¹⁾ 이명숙(2003, 108)는 어휘에 대한 지식의 부족 혹은 결여는 듣기 이해의 주된 방해 요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의 어휘 지식과 듣기 이해와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어휘 지식이 듣기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한다.

그간 어휘 지식과 듣기 능력 간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어휘 지식(vocabulary knowledge)을 양적 어휘 지식(breadth of the vocabulary knowledge)과 질적 어휘 지식(depth of the vocabulary knowledge)으로 구분하였다.²⁾ 어휘 지식은 의사소통의 기본이 되는 요소이고, 그 범위 또한 듣기 이해와 어느 정도 관련을 맺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 듣기 교육에서 실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어휘 지식 관련 연구가 많이 없어, 또 본 연구에서 채택한 대상이 대만 초급 한국어 학습자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만약 연구 결과에서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1) Goh(1998, 23)는 청자의 배경지식 이외에 어휘 지식, 발화 속도, 듣기 입력의 종류, 화자의 억양 등의 요인이 듣기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어떠한 요인들보다 어휘 지식이 듣기 이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 양적, 질적 어휘지식에 대한 논의는 다음 2.2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지식이 학습자의 듣기 이해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진다면, 본 연구는 한국어 듣기 교육에서 어휘 지식의 중요성을 알아내게 될 것이고 대만과 같은 KFL(Korean as a Foreign Language)³⁾ 학습 상황에서 효과적인 듣기 및 어휘 교육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문제를 통해 양적 어휘 지식, 질적 어휘 지식, 듣기 이해 세 변인의 상관성에 대해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대만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지식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 문제 2. 양적 어휘 지식, 질적 어휘 지식과 듣기 이해는 어느 정도의 상관성을 갖는가?

연구 문제 3.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은 듣기 이해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어휘 지식 및 듣기 이해

본 연구는 어휘 지식과 듣기 이해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해 보려는 연구이기 때문에 우선으로 어휘 지식이란 그리고 듣기 이해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어휘를 안다는 것은 한 화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와 어휘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구사하는지를 일컫는 말이다. 한국어교육에서 어휘 지식은 이해 영역의 듣기와 읽기, 표현 영역의 말하기와 쓰기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능력으로 여겨진다(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560). 어휘 지식은 크게 양적 어휘

3) 학습의 주위 환경이 한국어인 곳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은 'KFL(Korean as a Foreign Language)'이라고 한다(조현용 2000, 3). KSL 환경과 달리 KFL 환경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면 일상에서의 글과 말이 모두 한국어에 노출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Anderson and Freebody(1979, 20)에 따르면 양적 어휘 지식(breadth)은 개인이 어휘의 양(size)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를 의미하고, 질적 어휘 지식(depth)은 해당 어휘와 관련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 중 질적 어휘 지식은 어휘의 형태, 의미, 문법 패턴, 다른 단어와의 관계 등을 포함한다(Nation 2001, 김창구 외 역 2018, 67).

듣기(listening)란 음성 언어인 말로 이루어지는 구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청자의 말을 이해하는 행위로 단순히 물리적인 소리만을 듣는 들리기(hearing)와 다르다(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1069). Rost(2006)는 듣기 이해(listening comprehension)란 화자가 말한 내용을 이해하고 어휘와 배경지식을 통해 의미를 표상화하며 다른 화자와 의미 협상하고 반응하는 복잡한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들 논의를 참고해 본 연구에서는 듣기 이해란 원초적인 청각적 행위를 넘어 화자가 말한 내용을 기존의 언어 지식과 배경지식과 연계한 후, 분석 판단하여 의미를 재구성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겠다.

2. 어휘 지식과 듣기 이해의 연계성⁴⁾

어휘 지식은 의사소통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촉매제이며 또한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에 있어 기본이 되고 필수적인 요소라 알려져 있다(Schmitt 2000, 155; Vermeer 2001, 217). 그러므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휘 지식을 갖추고 상황맥락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어휘 지식은 주로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 그리고 수용적 어휘 지식과 생산적인 어휘 지식으로 분류되어 왔다(Richards 1976, 83; Read 1993, 357; Qian 1998, 20; Nation 2001, 김창구 외 역 2018, 67)

양적 어휘 지식(breadth of the vocabulary knowledge)이란 학습자가 기본 의미를 알고 있는 어휘의 총량을 가리키는 것으로 어휘 크기(vocabulary size)라고도 한다(Nation 2001, 김창구 외 역 2018, 47). 반면에 질적 어휘 지식(depth of the vocabulary knowledge)이란 학습자가 어떤 어휘의 다양한 측면, 즉 학습자가 특정 단어에 대해 의미적(지칭/상징, 개념구조/망, 연상)특성 뿐만 아니라 형태적(음성 형태, 문자 형태) 특성, 통사적(구문 패턴, 문법적 제약, 언어) 특성, 그리고 사용적(사용 빈도, 사용 영역

4) 한국어 교육에서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연구가 미진한 관계로 외국어교육 특히 영어교육에서의 논의도 함께 살펴보았다.

및 맥락에 따른 적절성) 측면 등의 다차원적 요소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Qian 1998, 20). 한편 이해 어휘(receptive vocabulary)란 한 개인이 알고 있는 어휘 중에서 일상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해도 듣거나 글을 읽었을 때 그 의미나 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말한다. 반면 사용 어휘(productive vocabulary)란 일상적으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직접 사용이 가능한 어휘이다(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561).⁵⁾ 그동안 외국어 교육에서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이 듣기 이해와는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일찍이 Conrad(1985)와 Kelly(1991)의 연구에서 어휘 지식이 듣기 이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논의하였고 Stærhr(2009), Wen(2014)과 같은 후속 연구에서도 어휘 지식과 듣기 이해 간의 상관관계가 크고, 듣기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어휘 지식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Conrad(1985)는 듣기 이해 과정에서 어휘의 통사적, 의미적 실마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유능한 학습자일수록 의미적 실마리 즉, 어휘적 단서에 주로 집중하고 사용하는 반면 듣기 이해가 부족한 학습자일수록 통사적 실마리에 더 의존함이 밝혀졌다. Kelly(1991)는 EFL 학습자의 듣기 오류를 세 가지 유형(인식 오류, 어휘 오류, 통사 오류)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상급 수준의 학습자 오류 중 42% 하급 수준의 학습자 오류 중 63%가 어휘적 오류에서 기인함이 밝혀졌다. 이를 근거로 Kelly는 부족한 어휘 지식이 성공적인 듣기 이해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Stærhr(2009)는 영어를 외국어로서 학습하고 있는 115명의 상급 수준의 덴마크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양적 어휘 지식, 질적 어휘 지식과 듣기 이해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학습자의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은 그들의 듣기 이해와 각각 .70, .65의 상관성을 보여주었고 이 두 지식을 합했을 경우 듣기 이해를 설명해주는 변량이 약 50%로 나타났다. Wen(2014) 역시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어휘 지식이 그들의 듣기 수행 과정에 있어 높은 기여도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국내에서 최현석(2004, 34)은 어휘 지식이 영어 청취 능력과 상관관계가 있고, 그에 대한 설명력도 크다고 하였다. 특히, 낮은 수준의 집단보다 높은 수준의 집단에서 더 상관성이 높게 나왔다. 곽은영(2019, 45), 이고은·최선희(2021, 368), 송유근(2021, 46) 등의 연구에서도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 지식은 그들의 영어 듣기 수행 과정에

5) 학습자의 이해 어휘, 표현 어휘와 듣기 이해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의 중심 내용이 아니므로 심도 있는 논의는 논외로 한다.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듣기 교육에서 어휘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 어휘 지식을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을 나누어 실험을 진행한 김영은(2008), 장하라·김지영(2020) 그리고 남기현(2023)의 연구에서는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이 듣기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세 요소 간에 상당히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김영은(2008, 160)은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 모두 듣기 이해와 밀접하고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장하라·김지영(2020)은 한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휘 지식과 영어 독해 및 듣기 능력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어휘 지식의 양은 $r=.645$, 어휘 지식의 깊이는 $r=.708$ 정도로 독해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효과 크기를 비교하면 어휘 지식의 양은 독해의 약 49.5%, 깊이는 약 48.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휘 지식의 양은 $r=.633$, 어휘 지식의 깊이는 $r=.655$ 정도로 듣기 능력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효과 크기를 비교하면 어휘 지식의 양은 듣기 능력의 약 42.7%, 깊이는 약 32.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기현(2023)은 한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휘 지식의 크기와 깊이가 각각 영어 듣기 능력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어휘 지식의 크기는 듣기 능력과의 상관도가 $r=.71$, 깊이는 $r=.68$ 로 어휘 지식의 크기가 약간 더 높은 상관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효과 크기를 비교하면 어휘 지식의 크기는 듣기 능력의 약 48%, 깊이는 약 2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어휘 지식을 확충한다면 듣기 능력 향상에 유의미함을 도출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비록 영어 교육에 한정된 것이지만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주며 적절한 연구를 진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외국어 교육에서 듣기 이해와 어휘 지식에 관한 연구가 그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한국어 교육에서는 아직 이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는 이정민·김영주(2010), 윤정기(2013), 오해리(2018)이 전부였다. 이정민·김영주(2010)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142명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어휘력과 언어 능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휘력은 전체 언어 능력 모두와 유의한 상관도(전체 $r=.349$, 읽기 $r=.320$, 쓰기 $r=.295$, 듣기 $r=.291$, 어휘·문법 $r=.239$)를 보였으나 그 상관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윤정기(2013)는 언어 지식과 듣기 전략의 사용이 한국어의 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읽기와 어휘·문법, 듣기 전략이 듣기 능력을 설명해 준 변량이 읽기는 36.2%, 읽기와 어휘·문법을 합했을 때 40.7%, 듣기 전략을 포함했을 때 42.8%로 나타났다. 이는 듣기 교육에서 어휘나 문법 등의 기본적인 언어 지식을 신장시키면서도 읽기와의 통합 교육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하

고 있다. 오해리(2018)는 중국에 있는 한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1학년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양적 어휘 지식, 질적 어휘 지식과 듣기 이해 능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 양적 어휘 지식은 $r=.923$, 질적 어휘 지식은 $r=.843$ 정도로 듣기 이해 능력과 높은 연관성을 보였으며, 효과 크기를 보면 양적 어휘 지식만 듣기 이해 능력의 약 85.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 결과를 근거로 양적 어휘 지식이 질적 어휘 지식보다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듣기 이해 능력에 주는 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기존 연구를 종합해 보면,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 두 측면이 모두 듣기 이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각 연구에서 어휘 지식이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 연구 결과는 아직 일관성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대다수 연구가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한국어 학습자 중 특히 대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휘 지식과 듣기 능력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어휘 지식의 효과성을 지지하면서 어휘 지식을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으로 나누어 듣기 이해와의 관계를 검증하고 어휘 지식이 대만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듣기 수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및 결과 분석

1. 연구 방법

1-1. 실험 대상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대만 K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초급 한국어 학습자 7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양적 어휘 지식 평가, 질적 어휘 지식 평가 그리고 듣기 평가에 참여한 학생은 모두 78명이었으나, 각종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7명과 듣기 평가 문제지를 해본 경험이 있는 2명⁶⁾을 제외한 69명(남 19, 여 50)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어휘 지식이 아닌 연구 대상의 한국어 학습 기간, 학습 환경, 교육적 수준, 한국어 능력

6) 제83회 TOPIK I 듣기 기출문제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자.

등 한국어 듣기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변인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 연구 대상은 대만 K 대학교의 같은 전공 같은 2학년 학생들로 통일되었다. 참여 학생들의 나이는 18~19세이었고, 한국어 어학연수를 한 경험이 없었으며 실험 모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1-2. 평가 도구

1-2-1. 양적 어휘 지식 평가

본 연구는 연구 참여 학생들의 양적 어휘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Nation(1983, 1990)이 고안하고 Schmitt, Schmitt, and Clapham(2001, 58)이 보완한 어휘 수준 테스트(Vocabulary Levels Test:VLT)⁷⁾의 형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구체적인 평가 방식은 각 문항 오른쪽에 3개의 정의⁸⁾가 주어지고 왼쪽에 6개의 단어를 함께 제시하여 그 중 각 정의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면 된다. 한국어 초급 학습자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할 어휘수는 대략 1,800개⁹⁾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다(김광해 2003, 276; 김중섭 2017, 314-321). 따라서 본 연구는 김중섭(2017)에서 제시된 한국어 어휘 평정 목록(1, 2급)을 참조하고 목표 어휘를 추출하여 총 30개의 문항을 제작하였다. 각 문항은 1점씩 배점하여 30점 만점이 되고 검사 시간은 50분으로 제한하였다(1급 어휘 15문항 × 3점 + 2급 어휘 15문항 × 3점 = 90점). 문항의 예시와 설명은 다음과 같다.

7) 이 평가 방식은 지문 속에서 단어 의미 추측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어 최소한의 의미 지식과 관련된 단어의 양적 지식을 측정하는 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도구로 인정받고 있다(김영은 2008, 149).

8) 문항 제작 과정에 있어 측정 단어의 정의는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수준에 어렵지 않도록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과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의 단어 뜻풀이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이 해당 단어의 기본 의미를 간략히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문항 정의 뒤에 해당 단어의 중국어 번역도 함께 제공하였다.

9) 김중섭(2017)은 한국어 초급(1급) 어휘 735개, 초급(2급) 어휘 1,100개를 제시하였고 김광해(2003)는 초급 어휘 1,845개를 제시하였다.

〈표 1〉 양적 어휘 지식 평가 예시

구분	김광해(2003)		김중섭(2017)	참고
	4구분	6구분	6구분	
30 문항	초급	1	1급	초급(1) 수준 문항 15개 초급(2) 수준 문항 15개 총 30문항
			2급	
문항 예시	* 오른쪽에 주어진 짧은 정의(뜻)에 알맞은 단어 번호를 왼쪽에서 찾아 쓰시오.			
	1. 가방			
	2. 공책			
	3. 지난주		이번 주의 바로 전 주.(上週)	
	4. 딸		부모가 낳은 아이 중 여자.(女兒)	
	5. 달걀		달은 점이 있어 거의 같다.(相同, 差不多)	
	6. 비슷하다			
설명	◎ 학습자는 오른쪽에 주어진 짧은 정의와 중국어 뜻에 해당하는 단어를 왼쪽에 주어진 단어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1-2-2. 질적 어휘 지식 평가지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질적 어휘 지식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도구로서 유철우(2020)의 질적 어휘력 평가지의 틀을 활용하였다.¹⁰⁾ 이 측정 도구는 Read(1993, 359)의 단어 연상 시험(Word Associate Test:WAT)에서 개발한 평가 문항의 형식을 참고하였으며 한국어의 언어적 특징과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고려한 발음 및 철자 테스트 문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이 평가 도구는 문맥 독립형¹¹⁾인 평가 방식을 선택하였다.

10) 유철우(2020)의 어휘력 평가지는 학문 목적 학습자의 어휘력과 읽기 능력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따라서, 이 평가지는 학문적 어휘와 읽기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반 목적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어휘 지식을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가 어휘 선정 시 학문적 어휘가 아닌 일반 목적 한국어 초급 어휘를 선정하여 문항을 제작하였다.

11) 문맥 독립형 평가는 평가자가 특정 어휘를 선택하여 제시하는 어휘 분리 평가 방식이다 (Read 2000, 28; 이정민·김영주 2010, 34).

본 연구에서의 질적 어휘 지식 평가는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졌고 학습자는 목표 단어와 관련 있는 단어를 보기 중에서 네 개를 고르면 된다. 문항에 사용된 어휘는 김중섭(2017)의 한국어 어휘 평정 목록(1, 2급)에 제시된 단어를 추출하여 제작하였고 양적 어휘 지식 평가의 평가 어휘와 겹치지 않게 선정하였다. 배점은, 각 목표 단어에 대해 보기 중에서 주어진 연관어 1개를 맞추면 1점, 2개를 맞추면 2점, 3개를 맞추면 3점, 4개를 모두 맞추면 4점 그리고 오답에 대한 감점은 없고 철자나 발음을 정확하게 선택한 문항마다 1점씩 가산하여 총 150점을 만점으로 한다(관련어 찾기 30점 × 4점 + 철자 판단하기 15문항 × 1점 + 발음 식별하기 15문항 × 1점 = 150점). 질적 어휘 지식 평가에서 주로 평가의 목표 단어와 다른 단어의 의미적 관계(상위어/하위어, 동의어/반의어, 전체어/부분어)와 선·후행 통합적 관계 판단에 중점을 두었다. 검사 시간은 양적 어휘 지식 평가와 같게 50분으로 한정하였다. 문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2〉 질적 어휘 지식 평가 예시

<p style="text-align: center;">문항 예시</p>	<p>* 정확한 발음 혹은 철자를 선택한 후 8개의 단어 중에서 목표 단어와 연관성이 있는 단어 4개를 골라 동그라미 하십시오.</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구두 <input type="checkbox"/> 구두 (철자 판단)</p> <p>(1) 입다 (2) 신다 (3) 맛있다 (4) 비싸다 (5) 신발 (6) 타다 (7) 운동화 (8) 비행기</p> <p>2. 축하하다 <input type="checkbox"/> 추카하다 <input type="checkbox"/> 축가하다 (발음 식별)</p> <p>(1) 생일 (2) 어렵다 (3) 진심으로 (4) 아프다 (5) 실망하다 (6) 드리다 (7) 선물 (8) 좋은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설명</p>	<p>◎ 학습자들은 8개의 단어 중에서 목표 단어와 관련된 4개 단어를 고르면 된다.</p> <p>◎ 문항1에서 (2)의 '신다'는 후행 통합적 관계를, (4)의 '비싸다'는 '구두'와의 선행 통합적 관계를, (5)의 '신발'은 상위어 관계를, (7)의 '운동화'는 동의어 관계를 보여준다.</p> <p>◎ 문항2에서 (1)의 '생일'과 (8)의 '좋은 일'은 어휘장에 속한 내용을, (3)의 '진심으로'는 선행 통합적 관계를, (6)의 '드리다'는 '축하하다'와의 후행 통합적관계를 보여준다.</p>

1-2-3. 듣기 평가지

듣기(listening)는 음성 언어인 말로 이루어진 구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청자의 말을 이해하는 일련 행위를 말하고 듣기 평가(listening assessment)는 학습자의 듣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듣기 평가의 유형은 크게 음운의 식별을 통한 의미 파악 능력, 듣고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 들은 내용을 적용하는 능력,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이나 종합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로 나눈다(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1069).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듣기 평가는 학습자의 전반적인 듣기 능력을 알아보고자 한국 국가 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TOPIK) 중 듣기 영역 30문항¹²⁾을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듣기 평가는 사지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 배점(3, 4점)이 달라 총 100점 만점이 된다. 검사 제한 시간은 40분이었다.

1-3. 실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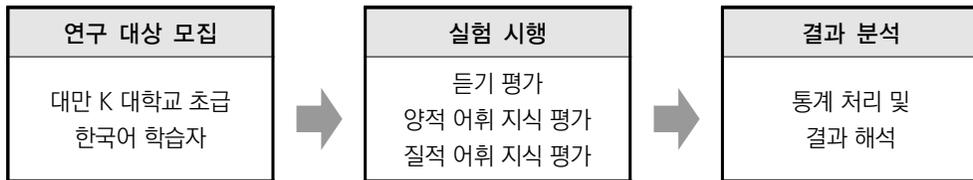
본 연구는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대만 K 대학교 응용외국어학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시간 외에 실시하였다. 모든 평가를 한 번에 실시하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실험 참여자들에게 부담이 되어 응시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는 각각 다른 날에 실시하였다. 어휘 지식 평가 이전에 실험 대상자들에게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 그리고 듣기 평가의 문제 풀이 방식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연습 기회도 주었다.¹³⁾ 또한 본 실험 전에 연구 진행의 효율성, 평가 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 실험과 평가 도구 검증을 하였다. 연구 대상자와 같은 학교 같은 전공 학습자 15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한 결과, 듣기 평가 40분(TOPIK 듣기 평가 한 회 제한 시간 40분), 양적 어휘 지식 평가과 질적 어휘 지식 평가 각각 5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평가지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양적 어휘 지식

12) 본 연구의 듣기 평가는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듣기 기출문제 제83회(TOPIK I)를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능력시험은 공인된 시험이라는 것이고 둘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듣기 평가에 적합한 도구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 한국어능력시험의 듣기 평가 문항은 듣기의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종합적 이해와 같은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13) 듣기 평가의 1차 2차 연습은 각각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듣기 기출문제 제60회와 64회(TOPIK I)를 사용하였다.

평가 .811, 질적 어휘 지식 평가 .803, 듣기 평가 .884) 나타났다.¹⁴⁾ 평가 도구가 학습자의 어휘 지식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2명(대만 한국어 교육과 교수, 현장 교육 경험 5년 이상)에게 타당도 검증을 부탁하여 ‘사용 가능’이라는 평가 결과를 받았다. 구체적인 실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3〉 실험 절차



〈표 4〉 실험 방법

구분	대상	날짜	내용
예비 실험	초급 한국어 학습자 15명	2023년 10월 30일	듣기 평가(40분)
			양적 어휘 지식 평가 실시(시간 제한 없음)
			질적 어휘 지식 평가 실시(시간 제한 없음)
본 실험	초급 한국어 학습자 78명	2023년 11월 2일	연구 목적 설명 및 절차 안내(10분)
			1차 듣기 평가 연습(40분)
		2023년 11월 6일	2차 듣기 평가 연습(40분)
		2023년 11월 8일	듣기 평가 실시(40분)
		2023년 11월 10일	양적 어휘 지식 평가지 설명 및 연습(10분)
			양적 어휘 지식 평가 실시(50분)
		2023년 11월 13일	질적 어휘 지식 평가지 설명 및 연습(10분)
질적 어휘 지식 평가 실시(50분)			

1-4.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해서 아이비엠(IBM) SPSS 29.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모든 통계적 검증의 유의수준은 95%(유의도 $p < .05$)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

14)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 α) 계수의 신뢰 수준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며, 신뢰도의 기준값을 0.6 또는 0.7 이상일 때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를 분석하기에 앞서 각 평가 결과에 대한 기술적 통계 분석(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실시하였다. 먼저 첫 번째 연구 질문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의 어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들의 영적 어휘 지식 평가 결과를 통해 어휘 크기 통산 어렵값을 구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 질문인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은 듣기 이해와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 분석(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 질문인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은 듣기 이해를 예측할 수 있는가 밝히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분석

본 연구는 초급 한국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이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본 절에서는 서론에서 제기한 연구 문제에 대한 실험 결과를 살펴보고 그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1. 각 평가 결과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문제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어휘 크기, 어휘 지식(양적 어휘 지식, 질적 어휘 지식)과 그들의 듣기 이해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설명력을 분석하기에 앞서 각 평가 결과에 대한 기술통계가 먼저 이루어졌다. 듣기 평가, 양적 어휘 지식 평가, 질적 어휘 지식 평가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및 최댓값은 다음<표 5>과 같았다.

<표 5> 각 평가 결과의 기술통계(n=69)

평가 도구	평균 (M)	표준편차 (SD)	최솟값	최댓값	100점 환산 점수	Cronbach's Alpha
듣기 평가	73.75	7.488	60	90	73.75	.833
양적 어휘 지식 평가	72.64	3.682	66	82	80.71	.807
질적 어휘 지식 평가	90.10	5.015	80	100	60.06	.791

〈표 5〉를 살펴보면 듣기 평가의 평균 점수는 100점 중 73.75점(SD=7.488)¹⁵⁾으로 나타났고 양적 어휘 평가의 경우 총점 90점 중 평균 점수 72.64점(SD=3.68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총점이 150점인 질적 어휘 평가의 평균 점수로는 90.10점(SD=5.015)¹⁶⁾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듣기 평가는 73.75점, 양적 어휘 평가는 80.71점, 질적 어휘 평가는 60.06점이었다. 각 평가 도구의 크론바흐 알파(Cronbach α) 계수는 듣기 평가 .833, 양적 어휘 평가 .807, 질적 어휘 평가 .791로서 세 가지 평가 도구가 모두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질적 어휘 평가의 평균 점수가 양적 어휘 평가의 평균 점수보다 낮게 나왔다.¹⁷⁾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봤을 때, 질적 어휘 평가가 한국어 초급 학습자에게 다소 부담이 되는 시험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바꿔 말하면 어휘의 형태적 지식(철자/발음), 의미적 관계 지식(상위어/하위어, 동의어/반의어, 전체어/부분어), 사회 역사적 지식(어원), 통사적 관계 지식(용법/제약), 통합적 관계지식(연상)이 학습자에게 쉽지 않은 영역임을 의미하며 대부분 학습자가 어휘를 학습할 때 단순히 단어의 의미만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¹⁸⁾

2. 학습자의 어휘 크기

[연구 문제 1]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지식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

-
- 15) 듣기 이해 점수는 100점 만점에 73.75로 이 점수는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의 점수를 감안할 때 보통 정도로 간주한다.
- 16) 어휘 지식 간의 표준편차를 비교해 보면 질적 어휘 지식이 양적 어휘 지식보다 높게 나와, 이는 학습자의 개인별 질적 어휘 지식 차이가 상대적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17)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언급한 것처럼 이 연구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에는 학습자의 발음과 형태 오류 문제, 어휘 관계 문제 등이 더 있을 것이다. 다만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발음과 형태 평가의 정답 또는 오답에서 두드러지는 음운현상을 확인하고 교육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휘 관계와 관련한 정답과 오답을 분석한다면 연구 참여자들이 선행 또는 후행 통합적 관계, 어휘 의미 관계에서 상하위어 또는 동의어 등 오답 비율이 높은 것을 분석하여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어휘 의미 관계를 활용한 어휘 교육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지 못해 아쉬웠다. 후속 연구에서는 질적 분석을 통해 이러한 지점에 대해 보완하도록 하겠다.
- 18) 실제로 어휘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암기하여 어휘의 피상적 지식만을 늘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휘 지식의 형태, 의미, 통사, 어원, 연상, 용법, 제약 등의 다차원적 지식을 함께 아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Richards 1976, 83; Nation 2001, 김창구 외 역 2018, 67).

한 사람의 어휘량(vocabulary size)이 그의 언어능력의 지표리라는 점을 생각하면 학습자의 어휘 지식 크기를 실제 측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탐구 문제가 될 것이다(Nation, 2001, 김창구 외 역 2018, 26-27; 조현용 2000, 97).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만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지식과 그들의 듣기 이해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전에 우선 학습자들의 실제 어휘 크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적 어휘 지식 평가를 통해 산출된 어휘 크기 통산 어림값은 다음<표 6>과 같았다.

<표 6> 어휘 크기 통산 어림값(n=69)

단계		최솟값	최댓값	평균(M)	표준편차(SD)	어림값
4 구분	6 구분	66/90	82/90	72.64 (80.71%)	3.682	1,489개
초급 1,845개 ¹⁹⁾	1					

()안 숫자는 각 테스트에서 정답 퍼센트

<표 6>에서 보여주듯이 양적 어휘 평가에서 9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학습자들의 점수 평균을 내었다. 초급 단계 평균이 72.64점(80.71%)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표준편차도

19) 김광해(2003)는 그동안 연구자들이 제시한 어휘 목록을 바탕으로 메타 계량 방식을 활용하여 어휘를 선정하고 분석하여 한국어 교육용 1등급 기초어휘 1,845어를 정리하였다.
<표 7> 총 어휘와 L1, L2 교육용 어휘별 규모(김광해 2003, 276)

어휘량	누계	L1 교육용		L2 교육용			성격		
		등급	개념	4구분	6구분	특징			
1,845	1,845	1	기초 어휘	초급	1	생활 어휘, 문화 소통용 어휘 등급 조정	L2	L1	총 어휘
4,245	6,090	2	정규교육이전	중급	2				
8,358	14,448	3	사춘기 이전, 사고도구어일 부 포함	상급	3				
19,377	33,825	4	급격한 지적 성장, 사고도구어 포함	고급	4				
					5				
32,946	66,771	5	전문화된 지적 성장 단계, 다량 전문어 포함	6					
45,569	112,340	6	저빈도어: 대학 이상 전문어 (기존 계량 자료 증장 어휘 + 누락어 14,424 추가)						
125,670	238,010	7	누락어: 분야별 전문어, 기존 계량 자료 누락 어휘						

크게 나와 학습자 간의 양적 어휘 지식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²⁰⁾ 한편, <표 6>의 평균 점수를 이용하여 그들의 실제 어휘 크기의 어렵값을 알아낸 결과, 초급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 크기는 약 1,489개이다. 이는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어휘력이 대략 800에서 2,000개 사이의 기초 어휘²¹⁾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현행 한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n:TOPIK) 초급(1급, 2급) 평가 기준과 비슷하다.²²⁾ 또한 어휘 평가에서 80% 이상의 어휘를 알아야 그 단계의 어휘를 습득한 것으로 볼 때(Nation 1983, 13), 본 연구의 실험 대상자들은 초급(1급) 어휘를 습득했다고 할 수 있으나 초급(2급)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3. 어휘 지식과 듣기 이해의 상관관계

[연구 문제 2] 양적 어휘 지식, 질적 어휘 지식과 듣기 이해는 어느 정도의 상관성을 갖는가?

본 연구에서 대만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양적 어휘 지식, 질적 어휘 지식 평가 결과와 그들의 듣기 이해 평가 결과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SPSS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r 값을 구하였다. 각 변수를 투입하기 전에 우선 각 평가의 측정 결과를 정규성 검증을 거쳐 내적 일관도 확인하였다. 그 결과²³⁾, 학습자들의 양적 어휘

20) 일반적으로 표준편차 수치가 클수록 자릿값들이 널리 퍼져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양적 어휘 지식 평가 결과의 표준편차 수치가 다소 높게 나온 것은 피험자들의 개인별 어휘 크기 차이가 비교적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이는 또한 표본 수가 적은 것에도 무관하지 않다.

21) 이희자(2003)는 기초 어휘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며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단어들의 총체라고 하였다.

22) 현행 한국어능력시험 등급별 평가 기준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의 토픽(TOPIK) 누리집 <https://www.topik.go.kr> 참조 바람.

23) 각 평가의 정규성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정규성 검정(n=69)

	Kolmogorov-Smirnov			Sahpiro-Wilk		
	Statistics	df	Sig.	Statistics	df	Sig.
듣기 이해	.096	69	.188	.975	69	.177
양적 어휘 지식	.105	69	.057	.970	69	.095
질적 어휘 지식	.097	69	.180	.968	69	.0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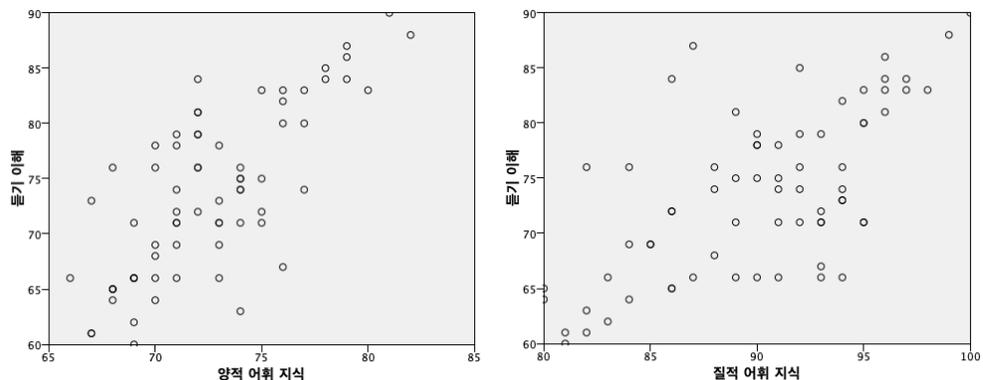
지식, 질적 어휘 지식 그리고 듣기 이해 평가 점수 모두가 .005보다 적은 값이 없어 정규성 판단 기준에 만족하였다.

〈표 8〉 상관관계 분석 결과(n=69)

	듣기 이해	양적 어휘 지식	질적 어휘 지식
듣기 이해	1		
양적 어휘 지식	.744**	1	
질적 어휘 지식	.661**	.585**	1

** 상관계수는 .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그림 1〉 단순 산점도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이 듣기 이해와 각각 높은 상관인 .744와 다소 높은 상관인 .661을 보였고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 간에도 .585로 다소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⁴⁾²⁵⁾ 이로써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은 독립적으로도 듣기 이해에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24) 피어슨 상관계수를 해석함에 있어 .00~.20미만이면 상관관계가 거의 없음, .20~.40미만이면 낮은 상관관계, .40~.70미만이면 다소 높은 상관관계, .70~.90미만이면 높은 상관관계, .90이상이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로 볼 수 있다(송지준 2022, 131).

25) 어휘 지식과 듣기 이해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로 미루어 봤을 때, 계획을 세우고 학습자들의 어휘 지식을 확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학습자의 듣기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두 지식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듣기 이해와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휘 지식 간의 상호작용이 학습자의 듣기 이해에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양적 어휘 지식이 높은 학습자가 질적 어휘 지식도 높을 때 이 두 지식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더 수월하게 듣기 이해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하지만 어휘 지식 향상도와 듣기 향상도 간에 유의한 상관이 없다는 노은숙(2009, 89)의 논의²⁶⁾와 어휘력이 언어능력(듣기)의 향상에 관여하는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는 이정민·김영주(2010, 39)의 연구 결과($r=291, p<.01$)와 사뭇 다르다. 이는 연구 대상자들의 언어 능력 및 실험 도구의 차이로 인해 분석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과 듣기 이해 간의 산포도 <그림 1>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양적 어휘 지식이든 질적 어휘 지식이든 모든 영역에서 우상향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양적 어휘 지식 혹은 질적 어휘 지식의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값 즉, 듣기 이해도 같이 향상하는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적 어휘 지식과 듣기 이해 간의 분포가 좀 더 밀집해 보임으로써 양적 어휘 지식($r=744, p<.01$)이 질적 어휘 지식($r=661, p<.01$) 보다 듣기 이해와 더 높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같은 KFL 환경에 있는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양적 어휘 지식, 질적 어휘 지식이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오해리(2018, 84)의 분석 결과와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처럼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의 양적 어휘 지식이 질적 어휘 지식보다 그들의 듣기 이해와 더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초급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일정한 어휘량(어휘 크기)을 보유해야 함을 시사하고²⁷⁾ 교사는 교재 내 한정된 양의 어휘를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되도록 학습자에게 많은 양의 어휘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상관관계는 청자가 화자의 말을 들은 후 텍스트의 내용과 상황 맥락에 대한 머릿속에 적절한 표상을 구상하는 데에 어휘 지식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26) 노은숙(2009)은 중학교 1학년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휘력 향상이 학생들의 영어 듣기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명시적 어휘 지도 방법이 학습자들의 어휘 학습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듣기 평가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갖지 못하였다.

27)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대만 한국어 교육 현장에 있어서 학습자의 어휘 능력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부족한 사실과 어휘 학습이 문법 학습에 비해 확실히 뒷전에 밀려나 있는 실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어휘 지식과 듣기 이해의 회귀분석 결과

[연구 문제 3]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은 듣기 이해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가?

학습자의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 중, 어떤 변인이 듣기 이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각각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에서 제시한 상관계수 값을 바탕으로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 변인을 하나씩 추가로 투입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s)을 실시하였다.²⁸⁾

〈표 10〉 모형 요약(n=69)

모형	R	R ²	수정된 R ²	추정값의 표준오차	R ² 변화량	F 변화량	F 변화량 유의확률
1	.744	.554	.548	5.036	.554 ²⁹⁾	83.316	.000
2	.795	.631	.620	4.616	.077	13.777	.000

모형 1: (상수), 양적 어휘 지식

모형 2: (상수), 양적 어휘 지식, 질적 어휘 지식

〈표 1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양적 어휘 지식은 듣기 이해의 54.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적 어휘 지식을 투입하면 7.2%의 고유 설명량을 추가로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적 어휘 지식이 학습자의 듣기 이해 과정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이 실제로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며 상승효과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질적 어휘 지식의 추가 설명력이 7.2%에 불과하다는 것과 앞서 상관관계 분석에서 두 변인 간의 상관성($r=.585$, $p<.01$)이 있다는 것을 참작할 때 질적 어휘 지식이 양적 어휘 지식과 서로 반하고 분리된 변인이 아닌 합의 관계 혹은 연속선상에 있는 개념이라고 의미하고 어휘의 양적 지식과 질적 지식 간의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28)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에 대한 회귀 모형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규분포를 비롯해 몇 가지 사전 검사를 하였다. 분석 결과, 변수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변수의 독립성을 검정하는 Durbin-Watson 지수, 다중공선성까지 모두 만족하였다.

29) 양적 어휘 지식과 관련된 R² 변화량이 크다는 것은 독립변수인 양적 어휘 지식이 종속변수인 듣기 이해에 대한 설명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것을 시사한다.

〈표 11〉 어휘 지식과 듣기 이해 간의 회귀분석 결과(n=69)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p)	공차	VIF
		B	SE	β			
	(상수)	-52.682	11.912		-4.423***		
듣기 이해	양적 어휘 지식	1.107	.187	.544	5.907***	.658	1.520
	질적 어휘 지식	.511	.138	.342	3.712***	.658	1.520

수정된 R² = .620, F=56.490(p<.001), Durbin-Watson=.937³⁰⁾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표 11〉에서 보듯이 언어적 요인의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을 독립변수로, 듣기 이해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VIF는 1.520에 있고, 모형의 수정된 R제곱 =.620으로 전체 회귀선이 62%의 설명변량을 보였으며, 모형의 적합성은 F=56.490으로 통계적으로 p<.001 유의수준에서 나타났다.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은 모두 p<.001에 비해 작게 나타났으니 두 가지 변수가 모두 듣기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수정된 R제곱=.620을 보면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이 듣기 이해의 약 62%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³¹⁾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Stæhr (2009), Wen (2014), 김영은(2008), 윤정기(2013), 오해리(2018), 곽은영(2019), 장하라·김지영(2020), 이고은·최선희(2021), 송유근(2021), 남기현(2023) 등의 선행연구처럼 본 연구 역시 학습자의 듣기 이해와 그들의 어휘 지식 간에는 서로 관련이 있으며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이 듣기 이해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규명하였다. 바꿔 말하면 학습자의 어휘 지식이 많으면 듣기 능력도 좋고 어휘 지식이 부족하면 듣기 능력도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0) 회귀분석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기 전, Durbin-Watson 값을 확인한 결과 .937로 1에 근접하여 다중회귀분석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으로 학습자의 듣기 이해를 예측하는 것은 유의미하였으며 (F=56.490, p<.001), 공차 값과 VIF 값이 각각 0.1,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수정된 R제곱의 수치로 보아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인 듣기 이해에 대해 60% 이상을 설명해 주고 있어 학습자의 어휘 지식이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바꿔 말해, 어휘력이 높은 학습자가 듣기 수행 과정에서 더욱 수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학습자의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은 모두 듣기 이해에 유의한 정적(+)의 영향을 미쳤다. 특히 양적 어휘 지식($\beta = .544, p < .001$)이 질적 어휘 지식($\beta = .342, p < .001$)보다 듣기 능력에 더 큰 설명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어휘 지식이 듣기 이해를 약 54.4%, 질적 어휘 지식이 듣기 이해를 약 34.2%를 설명하였고 이는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이 한국어 듣기 이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지만 어휘의 양적 지식의 기여도가 조금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³²⁾ 이와 같은 결과는 어휘 지식(양적 어휘 지식, 질적 어휘 지식)이 듣기 이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Stæhr(2009)는 양적 어휘과 질적 어휘 지식을 합했을 경우 듣기 이해를 설명해 주는 변량이 약 50%로 나타났고, 박기표·김상문(2002)에서는 언어 지식(어휘와 문법)이 듣기 능력을 설명해 주는 변량이 37%로 나타났으며, 윤정기(2013)에서는 어휘와 문법 지식을 합했을 경우 듣기 능력을 설명해 주는 변량이 30.2%로 나타났고, 장하라·김지영(2020)에서는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이 듣기 이해를 설명해 주는 변량이 각각 42.3%와 31.8%로 나타났고, 남기현(2023)에서는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의 설명 변량이 각각 48%와 29%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들 선행연구와 함께 듣기 이해에서 어휘 지식의 중요성을 보여주었고 원활한 듣기 수행을 위해서는 양적 어휘 지식뿐만 아니라 질적 어휘 지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³³⁾

한편, 여기서 따로 주목해야 하는 점이 있다. 학습자의 듣기 능력은 매우 다층적이고 종합적인 능력이지만 그중에서도 언어지식 특히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이 효율적인 듣기 수행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전체 듣기 수행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습자의 듣기 수행 과정에서는 다양한 변인

32) <표 12>의 회귀 방정식을 보면 투입된 변수들의 유의확률이 모두 .000으로 유의확률 .05보다 크게 낮으므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양적 어휘 지식이 1점 올라가면 듣기 이해가 1.107만큼 높아지고 질적 어휘 지식이 1점 올라갈 때는 듣기 이해가 0.511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학습자의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들의 듣기 이해가 더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2> 듣기 이해의 회귀 방정식

회귀 방정식	$Y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Y(듣기 이해) = -52.682 + 1.107X ₁ (양적 어휘 지식) + 0.511X ₂ (질적 어휘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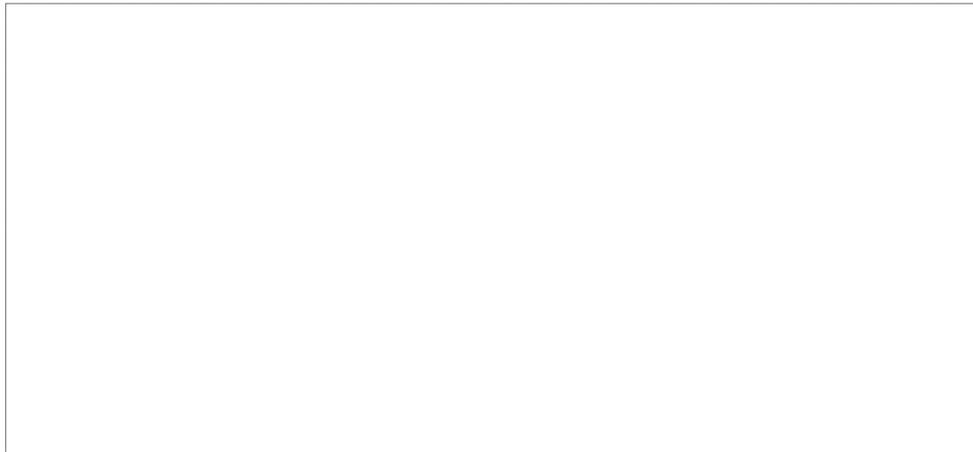
33) 한국어 듣기와 영어 듣기라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 수행 과정에서 학습자의 어휘 지식이 그들의 듣기 이해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흥미롭다. 이는 의미 구성 행위로서의 듣기라는 공통점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예를 들어 발음, 억양, 강세, 발화 속도, 머뭇거림과 휴지, 목소리, 비언어적 표현(몸짓 언어)과 같은 화자의 범주(speaker category)에 속하는 요인들, 듣기 연습, 교육적 수준, 지적 수준, 배경지식, 사전 경험, 발음 인식의 정확성, 문법 지식, 기억력, 전략과 같은 청자의 범주(listener category)에 속하는 요인들, 동기, 태도, 불안, 효능감과 같은 정의적 범주(affective category)에 속하는 요인들, 입력 유형, 통사적 복합성, 담화 표지, 내용의 어려운 정도(친숙성), 시각적인 보조의 정도와 같은 텍스트의 범주(text category)에 속하는 요인들, 장소, 소음과 같은 환경적 범주(environment category)에 속하는 기타 제반 요인들 (Boyle 1984, 36; Goh 1999, 21-22; 김효정 2008, 24-25; 박지연·문연정 2021, 99)과 관련된다. 이들 요인은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차이도 있고 서로 의존 혹은 요인 간의 상호 영향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들 요인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어휘 지식이 학습자의 듣기 이해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 그리고 의사소통에 바탕이 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선결 요건 가운데 하나로 본 것이다.

5. 결과 논의

지금까지 대만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듣기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어휘 지식(양적 어휘 지식, 질적 어휘 지식) 변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듣기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주효과 요인과 요인 간의 인과성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그림 2>과 같다.

〈그림 2〉 듣기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어휘 지식 변인



위의 <그림 2>에서 보듯이 양적 어휘 지식, 질적 어휘 지식과 듣기 이해 간의 인과성과 영향력을 보였다. 즉,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양적 어휘 지식, 질적 어휘 지식과 이 두 지식 간의 상호작용도 그들의 듣기 이해와 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어휘 지식이 대만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듣기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³⁴⁾ 따라서 학습자의 어휘 지식을 다층적으로 키워 나가는 것이 그들의 듣기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고 듣기 교육에서 어휘 지식을 확장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대만과 같은 KFL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언어 노출을 통해 어휘를 습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효과적인 어휘 지도 방안이나 통합교수법을 고안하고 효과적인 과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지식을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을 나누어 이 두 어휘 지식이 듣기 이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듣기 이해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 그리고 듣기 이해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를 작성하여, 대만 K 대학교 2학년 초급 한국어 학습자 69명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그 결과,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이 각각 학습자의 듣기 이해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휘 지식(양적 어휘 지식, 질적 어휘 지식 포함)이 듣기 이해의 약 62%를 설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실험 대상자들의 어휘 크기 어림값은 1,489개로서 대략 한국어능력시험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초급 1급, 2급(800~2,000개) 사이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34) 본 연구는 어휘 지식이 읽기 이해와 밀접한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김선정, Park and Jincheol · 민경모 2017, 원미진 2014, 이정민 · 김영주 2010, 유철우 2020)의 결과와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는 듣기와 읽기는 유사한 언어 이해 과정을 밟는다는 점과 공통적인 사고작용이라는 점 그리고 이해 단위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 두 언어 기능은 근본적으로 유사하다는 일원모델(The Unitary Model)을 지지해 주었고(이재승 1992, 25 ; 박기표 2008, 210) 이러한 결과는 곧 듣기와 읽기의 통합 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예측 변인으로 선정된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은 학습자의 듣기 이해와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피어슨 상관계수는 양적 어휘 지식 $r=744(p<.01)$, 질적 어휘 지식 $r=661(p<.01)$ 로 나타나 양적 어휘 지식이 질적 어휘 지식보다 듣기 이해와 더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상관 분석을 통해 발견으로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이 독립적으로 듣기 이해와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두 요소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듣기 이해와 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듣기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어휘 지식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도와주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듣기 이해를 예측하는 어휘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모형 1에서 독립변수인 양적 어휘 지식의 $r=.744$ 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적 어휘 지식이 듣기 이해를 55.4%($R^2=.55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 독립변수인 질적 어휘 지식의 $r=.795$ 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고, 독립변수가 63.1(adj. $R^2=.620$)%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 1과 비교해 볼 때, 약 7.7% 더 설명하였다. 그리고 상대적 영향력은 모형 2를 기준으로 하며, 모형 2에서 표준화 계수인 베타 (β) 값의 절댓값을 확인한 결과, 양적 어휘 지식($\beta =.544, p<.001$)과 질적 어휘 지식($\beta =.342, p<.001$)이 모두 듣기 이해 변량을 고유하게 설명하였다. 듣기 이해를 설명하는 어휘 지식 변인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모형의 VIF가 1.520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고 Durbin-Watson값도 .937로 나타나 잔차 간에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이로써 본 연구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어휘 지식이 그들의 듣기 이해에 영향을 주며 원활한 듣기 수행 과정의 촉매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한국어 듣기 교육에서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이 모두 듣기 이해와 높은 관련이 있고 특히 양적 어휘 지식이 질적 어휘 지식보다 듣기 이해에 영향을 더 미친다는 점에서 양적 어휘 지식을 전제하지 않고서 질적 어휘 지식만으로 학습자의 듣기 수행 과정 즉, 듣기 이해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이 모두 듣기 이해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어 듣기 교육 시 학습자의 어휘 지식을 더욱 넓히고, 또한 어휘 지식을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실험 대상의 인원수는 69명으로 비교적 적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듣기 이해에 미칠 수 있는 다른 제반 요인들과 함께 비교하여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학습자의 듣기 이해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듣기 교육 및 어휘 지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어 수준을 달리하여 중급이나 고급 한국어 학습자에게도 유사한 연구를 해 보고 학습자의 어휘 지식과 그들의 듣기 이해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곽은영. 2019. 어휘 능력과 언어 능력이 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국립국어연구원. 2000.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URL: <https://krdict.korean.go.kr>
- 김광해. 2003.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박이정.
- 김선정 · Park · Jincheol · 민경모. 2017. KFL 학습자의 읽기 능력 및 어휘력 비교: 한자문화권 학습자와 비한자문화권 학습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3(1), 1-22.
- 김영은. 2008. 한국 고등학생들의 듣기 이해에서 어휘 지식의 양과 깊이의 역할. 영어교육연구 20(2), 143-165.
- 김중섭. 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 김효정. 2008. 중학생의 듣기이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기현. 2023. 중학생의 영어 어휘 지식 크기 및 깊이와 영어 듣기 능력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은숙. 2009. 어휘력과 영어듣기능력과의 상관 연구: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국교육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기표. 2008. 언어능력, 듣기, 읽기의 상관관계와 이론적 시사점. 영어교육연구 20(1), 207-222.
- 박기표 · 김상문. 2002. 영어지식과 듣기전략의 사용이 영어 듣기능력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연구 14(1), 97-113.
- 박지연 · 문연정. 2021. 중국어권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듣기 효능감과 읽기 효능감 간의 상관 관계: 학습 기간과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62, 95-117.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한국어교육학사전. 하우.
- 송유근. 2021. 어휘다발 기반 빈칸 메우기 기법이 초등학생 영어 듣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지준. 2010.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 오해리. 2018. 초급 KFL 학습자 한국어 양적 질적 어휘 지식과 듣기 이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어 어휘 지식 측정 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85, 61-92.
- 원미진. 2014.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문법 능력과 읽기 능력 발달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어능력시험 결과 분석을 토대로. 문법교육 21, 145-165.
- 유철우. 2020.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력과 읽기 능력의 상관관계 연구. 국어교육연구

46, 243-282.

- 윤정기. 2013. 언어 지식과 듣기 전략이 한국어 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문연구* 78, 37-58.
- 이고은·최선희. 2021.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작업 기억 용량과 영어 어휘 수준 및 듣기 능력 관계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12), 365-370.
- 이명숙. 2003. TOEIC 듣기 시험결과 분석을 통한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듣기저해요소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재승. 1992. 듣기 기능과 읽기 기능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민·김영주. 2010.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력과 언어 능력의 상관관계 연구. *응용언어학* 26(2), 27-49.
- 이희자. 2003. 국어의 기초 어휘 및 기본 어휘 연구사. *새국어생활* 13(3), 국립국어원.
- 장하라·김지영. 2020. 한국 고등학생들의 영어 어휘지식과 독해 및 듣기 이해와의 관계. *외국학연구* 54, 91-120.
- 조현용. 2000.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 박이정.
- 최현석. 2004. 어휘능력, 배경지식과 영어 청취력과의 상관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nderson, R. C., & Freebody, P. 1979, Vocabulary knowledge. Technical Report 136, 1-71.
- Bonk, W. 2000, Second language lexical knowledge and listening comprehen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istening* 14, 13-31.
- Boyle, J. P. 1984, Factors affecting listening comprehension. *ELT Journal* 38, 33-44.
- Conrad, L. 1985, Semantic versus syntactic cues in listening comprehensio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7(1), 59-69.
- Goh, C. M. 1999, How much do learners know about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listening comprehension? *Hong Kong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4(1), 17-39.
- Kelly, P. 1991, Lexical ignorance: The main obstacle to listening comprehension with advanced foreign language learners. *IRAL* 29(2), 135-149.
- Lars, S. J. 2009, *Vocabulary Knowledge and Advanced Listening Comprehension in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tion, I. S. P. 1983, Testing and teaching vocabulary. *Guidelines* 5(1), 12-25.
- Nation, I. S. P. 1990, *Teaching and learning vocabulary*. New York: Newbury House.
- Nation, I. S. P. 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김창구 역. 2018. I. S. P. Nation의 외국어 어휘의 교수와 학습. 소통.

- Qian, D. D. 1998, Depth of vocabulary knowledge: Assessing its role in adults' reading comprehension I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Ontario, Canada.
- Qian, D. D. 2002,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ocabulary knowledge and academic reading performance. *Language Testing* 21, 28-52.
- Read, J. 1989, Towards a deeper assessment of vocabulary knowledge. Paper presented at the 8th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 Sydney, NSW, Australia.
- Read, J. 1990, The word associates test: A measure of the quality of vocabulary knowledge. *Language Testing* 10, 355-371.
- Read, J. 1993, The development of a new measure of L2 vocabulary knowledge. *Language Testing* 10, 355-371.
- Read, J. 2000, *Assessing vocabul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ards, J. C. 1976, The role of vocabulary teaching. *TESOL Quarterly* 10, 77-89.
- Rost, M. 2006, Areas of research that influence L2 listening instruction. In E. Us -Juan & A. Martínez-Flor (Eds.), *Current Trends in the Development and Teaching of the Four Language Skills*. Mouton de Gruyter; Walter de Gruyter, Inc., 47-73.
- Schmit, N. 2000, *Vocabulary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mitt, N., D. Schmitt, and C. Clapham, 2001, Developing and exploring the behaviour of two new versions of the Vocabulary Levels Test. *Language Testing* 18(1), 55-89.
- Stær, L. S. 2009, Vocabulary knowledge and advanced listening comprehension in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31, 577-607.
- Vermeer, A. 2001, Breadth and depth of vocabulary in relation to L1/L2 acquisition and frequency of input. *Applied Psycholinguistics* 22, 217-254.
- Wen, W. 2014, Assessing the Roles of Breadth and Depth of Vocabulary Knowledge in Chinese EFL Learners' Listening Comprehension. *Chinese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37(3), 358-372.
- Wilkins, D. A. 1972,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London: Edward Arnold.

● 투고일: 2024.07.16. ● 심사일: 2024.07.17. ● 게재확정일: 2024.08.13.

| Abstract |

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Vocabulary Knowledge and Listening Comprehension of Taiwanese Korean Language Beginners

Liu Cheyu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comprehensiveness of vocabulary knowledge(breadth and depth of the vocabulary knowledge) of Taiwanese Korean Language Beginner Learners affects their Listening Comprehension. Through this, it is believed that basic data on the direction of listening education and vocabulary guidance can be provid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s were obtained to uncover the independent correlation between the extensiveness of vocabulary knowledge and Listening Comprehension. The vocabulary knowledge had a high correlation with listening comprehension and it can account for 62% of listening comprehension. Considering that both breadth and depth of the vocabulary knowledge affect Taiwanese Korean learners' listening comprehension, it suggests that balanced guidance should be provided to expand learners' vocabulary knowledge and learn vocabulary knowledge in depth during Korean listening education.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Breadth of vocabulary knowledge, Depth of vocabulary knowledge, Listening comprehension